



## “국민의 목소리 외면 말라”

2만 여 재가불자가 5000여 스님에 이어 4대강 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가불자들은 특정 구간 한 곳을 지정해 4대강 사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생명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7월 14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 선언 결의 10일 만에 1만6917명이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재가불자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생명과 환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특정구간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 한 후 확산 여부를 결정하자는 국민 다수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목사업을 위한 것인지, 반쪽 정치에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간곡한 부탁도 모른 채는 정부는 권력에만 눈멀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종 서울대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회종 교수는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으로 분노와 향겨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준엄한 꾸짖음이고 타이르는 자비행”이라며 “불교의 생명존중과 비폭력의 총체적 모습이며, 진정한 ‘방생(放生)’을 잘 보여준 수행자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불자들이 소신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일반인들에게 소신공양의 참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고 당부하면서 “종단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만 재가불자 선언... 추모제 후 2차 서명

고 촉구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을 불교도들이 살려 생명평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밝힌 선언문은 8일 5000여 조계종 스님들의 생명평화 선언 같은 내용으로 승가와 재가가 뜻을 함께 할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도회 자제법사,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 대한불교청년회 현일환 사무총장,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박경호 회장, 불은사 이연수 사무총장, 길상사 맑고향기롭게, 불교여성개발원 등이 자리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서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과연 생명을 위한 것인지, 또

이번 선언문에 동참한 인원은 정도회 7341명, 불교환경연대(조계사 분향소 포함) 2143명, 불교여성개발원 1774명, 불은사 1354명, 길상사 800명, 참여불교재가연대 750명, 법장사 600명, 화계사 467명, 금선사 401명, 대한불교청년회 372명, 불교인권위원회 220명, 조계종 원우회 216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4명, 중앙신도회 60명, 우리는 선우 45명, 나무여성인권상담소 18명이다. 그밖에 13일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 문수 스님 추모 법회에서 뜻을 함께한 이들의 인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동참인원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동참자 발표는 1차로 진행됐다. 불교단체들은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문수 스님 범국민 추모제 이후에는 2차 서명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문수 스님 뜻 잇겠습니다”

## 조계종 전국사찰서 추모법회 동시 봉행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법회가 조계종 전국사찰에서 동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2일(음력 6월 초하루) 오전 11시를 전후해 ‘4대강 사업 중지’와 생명평화를 발원하며 소신 입적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 본말사 동시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추모법회는 전국 25개 교구 본사를 비롯한 조계종 소속 주요사찰이 동시 참여해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열반한 문수 스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사찰에서 추모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죽어가는 강과 못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문수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사회에 생명·평화의 가치를 드높이자는데 한마음을 이뤘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낮 12시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문수 스님의 분향소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반야심경〉 봉독 △추모 입정 △문수 스님 행장소개 △추모사 △찬불가 △주지 스님 추모법문 △정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토진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4대강은 MB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 몸을 던졌듯이 문수 스님은 불자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려 자신의 몸을 던져 보살행을 한 보살이다. 오늘 이후 문수 스님을 문수 보살로 부르며 찬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대각심 조계사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문수 스님은 중생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생명 존중과 맑은 세상을 염원하며 걸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는 보광당에서, 화계사는 오전 11시 40분 대웅전에서, 불은사는 오전 11시 범왕루에서 각각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동화사와 영천은 해사 등은 7월 14일, 음력 6월 초삼일 법회에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천진불 천운 스님 다시 오소서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세납 82세, 법랍 65세. 스님의 장례는 18일 오전 11시 해남 대흥사에서 종단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천운 스님은 입적 전 문도들에게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라. 마음을 늘 청정하게 수행하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니라)”는 유훈을 남겼다.

관련기사 10~11면  
조동섭 기자

# “화쟁” 개념 정립할 워크숍 연다

## 조계종 화쟁위 8월 12일 개최... 23·31일 낙동강 등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들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영산강을 방문한다. 또 ‘화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쟁위원회는 7월 23일과 31일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영산강을 찾아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화쟁’ 개념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8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제현 사찰생태연구소장이 ‘4대강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조계종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부산대)가 ‘불교적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4대강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불교계에 많은 일이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화쟁이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법·법등·진관

·원택·지홍·법안·자민 스님, 김종빈, 성태용, 윤시영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의 4대강 사업지지 호소문 발표 자리에 참석

했던 성타 스님은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조동섭 기자



**국내 최古 면직물 공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면직물이 첫 공개됐다. 폭 2cm, 길이 12cm 가량의 면직물은 1999년 능산리사지 6차 발굴조사 때 발견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이 6월 8일~8월 15일 개최 중인 ‘백제 중흥을 꿈꾸다-능산리사지’ 특별전에서 공개된 이 면직물은 고대 일반적 직조법과 달리 강한 꼬임의 위사(緯絲)를 사용한 백제의 독자적인 직조 기술이 이용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고려 문묘점이 목화씨를 처음 들여 온 14세기에 비해 800년이나 앞서는 국내 최고의 면직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 10월 경 국립부여박물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면직물을 만날 수 있는 능산리사지 특별전에서는 백제궁동대항로 등 400여 점의 유물이 동반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경기도교육청 2010-036  
2010 특수분야 교사 직무연수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마음에서 마음으로 울리는 따뜻한 교감!  
행복한 교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교실의 행복** 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한마음문화재단  
한마음과학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사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중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 내열 ABS  
내열특성: 연열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것을 경고 합니다.